

AUTHOR 천광진

TITLE 한국 교회의 3가지 부정적 유형에 대한 분석과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개혁 신학적 대안

IN 고려신학보

vol.30 (December, 1999): 52-81

한국 교회의 3가지 부정적 유형¹⁾에 대한 분석과 그 극복 방안으로서의 개혁 신학적 대안

천광진(원3)

I. 들어가는 말

한국 교회 역사 안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한 선포적인 도전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시기가 있었다.²⁾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확보된 지식의 잣대가 그 단순 논리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더 이상 '예수 천당'식의 전도 방법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부적합한 방법이 되어 버렸다. 물론, 복음은 인간적 방법의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는 은혜 교리는 현대인들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이지만 현대인들에게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복음의 기피 현상을 감안해 볼 때 복음 전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청되는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다.³⁾

- 1).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현대 한국 교회의 3가지 부정적 유형은 인본적 자유주의 노선에서 표방하고 있는 민중 이데올로기(민중 신학) 유형과 신비적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열광주의적 유형과 교리적 왕국화 현상 및 대형교회 지향적 성장주의 유형이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유형이 한국 교회에 전적으로 해악을 끼쳤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21세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를 진정하면서 바람직한 교회를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로 성경의 근본 정신을 이탈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성경의 정신에 입각한 개혁 신학적 입장에서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방향을 설정 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한국 초대 교회의 소위 최봉석(일명 최권능) 목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단순 구호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그에 따른 결신의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심군식, 『한국 교회 인물 25인 약사』, (서울:도서출판 영문, 1993), 48-51; 김혜연 『한국 교회사』, (2판 성광문화사, 1997), 279-280, 428-429를 보라.)
- 3). 현대에 있어서도, 노방 전도나 어떤 상황에서의 도발적 전도의 행위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그 외 군중이 밀집한 곳에서 상식을 벗어난 전도 행위는 '득' 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예상치 않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도의 인본적(합리적)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장로회 신학 대학 역사 신학과 이형기 교수(종교개혁 신학 전공)는 장로교 신학 대학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신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진다. (이형

현대의 지식인들에게는 과거 선조들이 사용했던 단순한 복음 전파의 방법은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다원화되어 가는 현실 속에서 고도로 발달된 다양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하여 그것들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삶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절대적 진리(예수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여전히 과거의 방법을 고수하면서 그것이 최선의 방법 인양 고집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단장해서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 분명한 사실은 비가시적 절대 진리의 불변 속에서도 가시적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도 절대 진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변화에 지혜롭게 대처하여 불변의 진리가 영롱하게 빛날 수 있는 개혁적 의지의 노력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다양하게 변했고 또 변화되어 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 지침을 제공해 주는 신학도 변화를 꾀해야 함은 당연하다. 본질은 변할 수 없지만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해 가기에 신앙인들에게 비판적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활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해 신학도 변화를 시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자기 반성의 개혁을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조국의 교회도 변화하는 세상의 조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주 되심의 진리가 영롱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토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는 개혁적 작업을 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다는 것은 세계 교회가 인정하는 놀랄 만한 사실이었다.⁴⁾ 그러나 작금의 조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함과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

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을 보라.)

- 4).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한국 교회 경이적 양적 성장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교회당 수	교인 수	교역자 수	교단 수	비고
1970년	13,007	3,235,475	15,708	59	NCC 기독교 연합 집계
1976년	16,351	4,319,325	80,058		"
1979년	17,793	4,867,657	24,035	64	문공부 한국 종교 편람 집계
1980년	21,243	7,180,627	31,743	67	문공부 종교 단체 집계

서광선 외 4명,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대화출판사, 1982), 301 참조.

하고 말았다.⁵⁾ 한국 교회의 성장 멈춤과 문제점들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주어진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는데,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회사의 초대 교회가 밝은 길을 되풀이하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초대 교회가 말씀 중심의 예배에서 의식적인 종교로, 계시 종교에서 자연 종교의 요소를 함축하는 민속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중심 하는 신앙에서 사람의 공로로 구원 얻음을 말함으로써, 교회의 조직과 권위애다 의미를 부여하는 교권주의적 종교로 퇴락 해 가는 과정을 밟았듯이 조국의 교회는 해방 후부터 양적인 성장을 보이면서, 말씀 중심의 신앙에서 교권을 앞세우는 신앙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영적인 십자가의 종교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강조하는 기복 신앙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신앙에서 거짓과 타협하고 성령의 은사만을 구하면서 무질서하고 공의와 진리를 외면하는 신앙으로,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에서 개인의 축복과 개 교회의 비대 만을 추구하는 폐쇄 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등, 기독교는 서서히 무의식중에 구약 사대의 제사 종교, 또는 중세의 계층주의적 교권주의 종교로 변질됨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퇴색시키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 한 마디로 말하면 조국의 교회는 종교 개혁 이전의 교회 형태로 변질 되어 개혁주의 신앙의 근본 토대인 성경 중심의 원리가 퇴색됨으로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5). 한국 교회의 성장 둔화 추세에 대해서는, 김영한, “한국 교회 성장에 관한 개혁신학적 고찰”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 성장』 제11집(서울:총회출판국, 1996), 163-164; 신국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 문제점과 성장 방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주도 최의원 박사 신학 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811을 참고하라. 위에 따르면, 한국 교회 신도수는 1990년에는 11,427,485명(10.8%), 1991년에는 12,091,837, (5.8%) 1992년에는 12,571,062.(4.0)명으로 통계되었는데, 이는 7-80년대에 비해서 현격하게 성장이 둔화된 것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의 책, 812-824; 신성중 “한국 교회 문제점과 전망” 『한국 교회 현실과 전망』 (제3판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1994)61-71;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제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127-149; 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서울:도서출판 영문, 1991), 서문을 참고하라. 위의 글에서 신국원 교수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 문제점을 잘못된 성장의 추구, 잘못된 개교회 중심, 설교의 약화, 지도자의 자질 문제, 불건전한 신비주의 등으로 지적하고 있고, 신성중 목사는 교회관, 신앙관, 축복의 개념, 설교, 천국관, 선교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나용화 교수는 한국교회 보수교단 교리의 현실 부적 용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이근삼 박사는 극단적인 신비주의, 신앙 사상의 무속화 현상, 이원론적인 가치체계를 지적하고 있다.

6). 『한국교회의 현실과 전망』 서문을 보라.

기존 체제를 보수하려는 성향을 가진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왜 곡되어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정당한 행위로 보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능후하다. 특히 목회자를 비판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대하여 신경질 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것은 아마, 맹목적 헌 신을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신 학이 비판적 기능에서 떠나 있다면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무의미한 영향만을 끼치 게 될 것이다. 물론 교회의 현 체제를 보존하기 위한 효교론적 신학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학이라기보다는 종교적 ‘이 데올로기’라고 지칭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큰 거짓말이라고 일 컬을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종교적 이데올로기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세의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은 역사적 교회가 보여준 가장 큰 거짓말의 좋은 예가 된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조명 아래서 교회 에서 자행되고 있는 거짓말들을 투쟁적으로 비판하였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본고에서는 ‘성경대로 계속적으로 개혁해 가는 교회’를 본질 적 이념으로 삼는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조국교회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 형들을 3가지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후, 그것들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에 대하여 논함으로써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개혁적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한국 초대교회의 중심 사상과 현실 한국교회의 문제점

1885년, 개신교는 조선말기 전통적 종교의 쇠퇴로 인한 종교적 신앙의 공백기와 전통문화의 쇠퇴기에 미국 북 장로교의 선교사 호레이스 언더우드(Hrace Underwood)가 이수정의 한역 마가복음을 들고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전래되기 시작 하였다.⁷⁾ 그 당시에 한국에 전래된 기독교는 암울했던 한국의 현실에 많은 긍정

7). 개신교의 선교사가 한국(인천)에 첫발을 디딘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었는데, 민경배 교수는 이 날을 미국인에 의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한 날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인천 에 상륙한 선교사는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감리교의 아펜젤러 부처 세 사람이었다.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4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152, 167; 김해연 『한국교회사』, 94-95,

적 영향력 행사하였는데, 그것은 한국사회에 근대화 추진의 정신력과 문화의식을 심어 준 것이었고,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신앙으로 보국개화 하며, 폐쇄적인 국민정신을 각성시키며, 윤리적 판단력과, 섭리적 신앙의 경영적 희망을 일깨우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족해방과 보존을 선포함으로써, 국권과 인권, 기본적 생존권의 유일한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는 민족교회로 정착하게 한 것이었다.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 입각한 경건주의적, 청교도적 신앙을 전수해 준 것이었는데,⁹⁾ 초기 한국교회는 이러한 사상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적 정통 신앙을 확립하게 되었고,¹⁰⁾ 이 성경 중심적 사상들은 한상동, 주남선, 주기철, 목사 등에 의해 계승되어 순교적 신앙 정신으로 이어졌던 것이다.¹¹⁾

그러나, 각급의 한국교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세계교회가 공인할 정도로 급격한 팽창을 이루었지만, 초창기의 문화정신, 민족 정신 및 성경적 신앙을 상실함으로써, 많은 부조리들을 노출하게 되었다. 현실의 한국교회는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많은 교파로 분리 되었고,¹²⁾ 성경적 축복 사상에서 이탈하여, 한국의 토속 종교인 무속과 결합된 기복적 경향성으로 토착화되고 말았다.¹³⁾ 또한 해방 이후에 양적으로 팽창 일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

고, 계속하여 성장주의¹⁴⁾적 대형교회를 지향하므로, 한국사회의 가치관 형성과 문화의식 형성에 기여할 만한 기독교 문화 이념과 가치관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윤리, 도덕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실패하였다.¹⁵⁾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내의 진보주의적 교파에서는 한국의 보수적 주류 기독교¹⁶⁾를 역사외식의 부재속에서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갇힌 단체로 규정하고, 자신들은 그 무리에서 탈피하여 민중신학¹⁷⁾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민중신학은 오히려, 성경에 입각하여야 할 기독교를 정치 경제사적 이데올로기로 변형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러한 한국기

김연택 『한국종교와 교회성장』, 129를 보라)

- 8) 민경배, 『한국교회사』, 215-248; 김경래 “한국민족 발전과 개신교 110년” 『민중생활과 하층 위로:소암 심근식 목사 회갑 기념문집』 (서울:총회출판국, 1995), 217-225를 참고하라.
- 9)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중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장로회 평양신학교 설립자 마포 삼열 박사는 자신의 선교노선을 “내가 한국에 처음 와서 복음을 개시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것을 십자가의 도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만 전하기를 굳게 결심 하였다. 만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결심 하였다.”라고 강하게 밝혔는데, 이는 그가 한국에 청교도적 신앙을 전수한 것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심년사』, (서울: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1956.) 173을 보라
- 10) 김영한, “한국 기독교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요인 분석 소고”, 『한국기독교와 신앙』, (서울: 도서출판 풍만, 1988) 43-47.
- 11) 김해연 『한국교회사』, 289.
- 12) 김영한 교수는 기독교 대연감을 근거로 하여 1993년에 벌써 장로교만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58개, 비공식적으로는 105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의 교단 분열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김영한, “한국교회의 성장에 관한 개혁신학적 고찰” 173을 보라.
- 13) 지병구, 『사마니즘과 한국교회』 (서울:새한 기획출판부, 1996), 54-74; 김연택, 『한국종교와 교회성장』 (안양:대한신학대학원출판부, 1998), 255-305를 참고하라.

14) 성장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성장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양적 성장 그 자체에만 매몰되어 교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는 교회 성장주의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회의 양적 성장에 대해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신학 교수들도 다 긍정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교회 문제 연구소가 펴낸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11권(초점:개혁주의 전통과 교회 성장)에는 교수들의 교회성장에 관한 글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최덕성 교수는 본서의 초점에서 교회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요구라고 밝히고 성령 안에서 내실 있는 신앙교육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현우평 교수는 두 편의 논문을 통하여, 교회가 속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해무 교수는 ‘확찬 교회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이라는 자신의 논문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실과 허를 지적한 후, 한국교회가 미국, 영국 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계속해서 확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자들 처럼 목사가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또한 변종길 교수는 목회와 신학 특집에 게재된 자신의 논문(『무엇이 성경적 교회 성장인가』, 1993.7.)에서 교회성장의 일반적 원리로 양적성장과 질적 성장의 상호 관련성과 교회성장은 복음전파에 종속되어야 함(행 11:34-43)을 논한 후 교회 성장을 위한 인간의 준비와 노력을 성령을 의지함, 기도, 헌신, 기회 있는 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됨을 들어서 설명했다.

- 15) 이상규, “해방이후 분단시대의 민족과 교회”,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서울: 총회출판국, 1996), 229-235.
- 16) 송실대 김영한 교수는 1930년대 이후의 신학을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적 정통신학, 감리교의 정경옥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적 종교 신학, 한신대의 김계준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신 정통주의적 역사 참여 신학으로 삼분하는데, (김영한, “한국신학의 진단과 진료” 『개혁사상』, 1989 제1호, 87참조) 본고에서 거론하는 보수신학은 박형용 박사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적 정통신학을 말하고, 진보신학은 김계준 교수를 통하여 연유된 사회 참여적 급진신학을 의미한다.
- 17) 민중 신학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자는 안병무, 『민중신학을 말한다』, (서울:한길사, 1993); 서남동, 『민중신학 탐구』, (서울:한길사, 1983)을 참고하고, 민중신학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자는 박이론, 『현대 신학 연구』, (제5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54-293; 나용화 『민중신학 평가』,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7)을 참고하고, 일반적 고찰을 원하는 자는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제4판 서울:성광문화사, 1995), 250-295를 참고하라.

독교의 왜곡된 모습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정리할 수 있다.

1) 인본적 자유주의 노선¹⁹⁾에서 표방하고 있는 민중 신학적 이데올로기 유형과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

해방 후 50년대까지의 한국교회는 신 정통주의 신학²⁰⁾을 배경으로 한 진보적 진영과 정통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한 보수진영의 대립이었다.²¹⁾ 그후 6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회 참여를 주장하는 세력과 교회는 이 세상 문제에 깊이 관련해서는 안되며 복음진도에 주력해야 한다는 세력이 대립되어 신학 문제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옮겨 왔다. 그리고 80년대 후반까지는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경이적인 양적 부흥이 일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의 신학사상의 결과로 한국의 독자적 신학 형태인 민중신학이 정립되기에 이르렀다.²²⁾ 민중신학자들은 한국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들에 강력하게 투쟁 할 수 있는 사상적

18)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235-236.

19) 보수주의 신학의 거장 총신대 박용선 교수는 보수신앙과 진보신앙, 그 화해의 길은 없는가 라는 대담에서 보수신앙을 정의하기를 기독교의 역사적인 교리와 신학적인 전통을 지키면서 기독교가 역사와 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 본질을 상실하지 않게끔 기독교의 본질을 보존하는 운동이요, 사업이라고 말하면서 그 특징으로는 개혁자들(바울, 아거스틴, 루터, 칼빈)이 전수해 준 이신독이 신앙, 성경의 절대권위 사상을 들수 있다고 말하였다. 반면에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서광선 교수는 자유주의를 “변화하는 사회, 역사, 문화 안에서 기독교의 본질(가령, 믿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계속해서 재 해석하고, 시대적인 상황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이다.” 라고 정의 한 다음 그 특징으로 19세기에 대두된 진화론과의 양립 여부에 대한 고찰, 고등비평의 수용, 칸트와 헤겔을 이은 슐라이에르마허 신학, 타 종교와 비 독교의 비교연구를 통한 진리추구 등을 말했다. (한완상 위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한기독교출판부, 1982, 211-214)

20) 신정통주의 신학의 대표학자는 20세기 신학의 거장 칼 바르트이다. 그의 생애와 신학을 고찰하고자하는 자는 토렌스 『칼 바르트』, 최영 역 서울:한울, 1997; 스텐리 그랜츠, 로저 울슨, 『20세기 신학』, 신재구 역, (한국기독교학술회출판부, 1997), 99-119; 박봉량 『신학의 해방』,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4) 396-529; 목창균, 『현대신학논쟁』, (서울:두란노, 1995)139-149; 토나레인 『기독교 사상사』, 김용국 역, (제 14판 서울:나침반) 413-425을 참고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박아론, 『현대신학 연구』(제5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1-58을 참고하라.

21) 김기홍, 『역사와 신앙』, (3판 서울: 두란노 서원, 1992), 195-198; 박형용, 『박형용박사전집』, 제1권, 5,6장; 박봉량, 『신학의 해방』, (재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국 1994), 301-354를 참고하라.

22) 『한국교회 성령운동의 구조』, 3-4

기반을 마련해 주었고, 반정부 세력들은 그들과 규합하여 정치, 사회전반에 걸쳐서 투쟁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한국의 정치, 사회적, 현실이 다소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일조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상적 기반이 된 민중신학은 신학이라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성이 농후했으며, 기독교의 절대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성경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민중신학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멧세지의 주요 내용이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민중이었다.²³⁾ 민중신학자²⁴⁾들은 신앙의 절대기준과 규범으로서의 텍스트인 성경의 주요 멧세지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선별한 역사적 사건들을 성경에 있는 사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해석 하였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원동인인 성경을 통해 확인되는 인격적 하나님을 도외시키고 억눌린 민중의 한에 내재하는 신을 역설하며, 성경의 주요 멧세지인 죄 대신 인간의 한을 말하며,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보다는 한 맺힌 민중의 증오와 한풀이를 통한 자력적 구원을 말한다.²⁵⁾ 민중신학의 대표학자 서남동 교수는 그의 주요 저서들을 통하여 사회에서 저주받고 버림받은 한 많은 민중들의 마음속에서 신을 만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²⁶⁾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은 초월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현실 속에 내재하시는 범신론적 인간신인 것이다. 또한 그는 고난 당하는 인간 안에 내재하는 신을 역사의 사회 경제사적 발전과 동일시하고 그 주체 세력인 민중을 신의 형상적 외연으로 본다.²⁷⁾ 더 나아가 그는 민중적 예수론을 주장한다. 그는 '민중신

23) 민중 신학의 대부 서남동 교수는 “나의 신학의 시작은 민중입니다. 내가 ‘민중’이라는 실체를 나의 신학의 중심 과제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1974년도부터라고 기억됩니다. 다음해, 나는 연세대 신과대 퇴수회(退修會)에서 ‘예수와 민중’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는데 이것이 나의 민중신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남동 『민중신학의 탐구』, 173)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신학 방향을 밝히고 있으며, 그의 동료 안병무 박사는 그의 민중신학적 저서 『역사와 해석』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8)의 증보판에 붙이는 말에서 “성서 만큼 민중적인 교전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지금은 민중적 시각을 의면하면 성서의 분류에서 떠나 주변에서 뭍돌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 라고 말하면서 아직도 민중 신학적 안목을 가지지 못하는 독자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는 심정을 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경을 민중 신학적 입장에서 해석해야만 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24)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학자는 한국신학대학의 서남동, 안병무 교수이다.

25)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제 4판 서울:성광문화사, 1995.) 291.

26) 위의 책, 276.

27) 서남동 교수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헤겔 신학(절대정신의 변증법적 자기 전개)의 영향에

학을 말한다'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민중 속에 내려와 자기를 민중과 동일시 하였기 때문에 예수가 곧 민중이요, 민중이 곧 메시아이다"라고 선언하였다.²⁸⁾ 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성을 실현한 인간의 표본적 모델로서의 삶을 산 인물이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구원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재연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²⁹⁾ 그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그의 의도 속에는 성경의 증언 속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시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고난 당하는 민중을 이해하는 데에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뿐인 것이다. 이러한 민중신학은 성경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임을 거부하고 성경을 사회 경제사 속에서 나타났던 민중운동(동학운동, 삼일운동, 등)의 한 형태를 보여주는 참고서로 보는 것이다.³⁰⁾ 그들은 성경의 구속사적 핵심 사건조차도 철저하게 사회 경제사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사실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억압적인 지배체제에 대해 폭력으로 대항하고, 탈출한 노예해방의 역사로 파악하는 데에서 여실히 드러난다.³¹⁾ 또한, 민중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도 정치적 사건에 연유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한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인간의 죄를 극복하기 위한 대속적 죽음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민중을 억압하는 예루살렘의 지배 체제에 강력하게 항거하는 예수를 당시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죄목을 씌어 처형한 사건으로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살해된 예수를 추종했던 무리들의 한풀이와 항변으로 보는 것이다.³²⁾ 이런 맥락에서 민중 신학자 서남동 교수는 오히려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사적 관점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본래 발생한 정치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에서는 그 사건이 비정치화 되어서 다만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통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³³⁾라고

기인한 것이 틀림없다. 자신도 자신의 신학사상이 해결적이라는 것을 인정한다.(서남동 "한국 신학으로서의 민중신학적 과제" 『신학사상』, 24권 봄호, 1979, 123을 보라.

28) 서남동, "민중신학을 말한다", 『민중신학』, 180. 안병무 교수의 민중 예수론과 비교해 보라. 안병무 교수는 서남동 교수와는 달리 성경을 해석하면서 민중신학을 전개해 나간다. (황종렬, 『한국 토착화 신학의 구조』, 서울: 도서출판 국태원, 1996), 42-51).

29)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신학의 탐구』, (1979). 3. 79.

30)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279.

31) 위의 책, 282-286

32) 위의 책, 287.

말하고, 또한 그는 "새 시대의 교회에 있어서 예수의 부활은 민중의 각성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다. 하고 나선 민중의 각성, 그것이 곧 부활입니다."³⁴⁾ 라고 강변한다. 이러한 민중신학자들의 자신의 저서들을 통한 발언들은 결코 성경의 증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을 자신들의 역사 인식의 이성적 견해로 해석해 낸 사건임이 틀림없다. 즉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여 구성해야 될 신학적 내용들을 자신들의 독특한 인간적 지성을 이용하여 역사적 삶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성경에 속해 있는 역사적 사건들과 인위적으로 결부 시켜 독창적인 해석을 가미하여 구성함으로써 성경의 근본 내용들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들은 초월적이고 인격적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민중의 고난 속에 있는 신으로, 구원주로서의 예수를 한의 그리스도로, 회개를 한풀이로, 구원을 해방으로 변형시켜 자신들의 신학적 작업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신학은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적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들의 영구적 혁명을 통한 자력적 구원을 선포하는 경향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의 성령론적 해석에 잘 나타난다. 그들의 성령론적 해석은 곧 구원이란, 자신이 예수를 현재의 삶에 재연하는 것이고, 지금 예수의 사건이 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그들의 신학의 내용 전반은 자신들이 구상한 민중이라는 개념을 정당하게 각색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경의 메시지를 정당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인본적 이성의 분별력으로 인간의 실존적 현실 상황에 대입시켜 사회 경제사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시켜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2) 신비적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열광주의적 유형과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성락교회와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현금에 와서 한국교회는 성장이 둔화되기는 했지만³⁵⁾ 70년대 후반을 시작하여 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정치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으로 거의 정의적이라 할만큼 급성장을 이루었다.³⁶⁾ 그러나 그 양적 성장의 배후

33) 서남동, "민중신학의 성서적 전거", 『민중신학』, 234

34) 서남동, "민중신학을 말한다." 194.

35) 각주 4번을 보라

36) 경제 성장이 한국교회 양적성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김영한, "한국교회 성장에 관한 개

에는 여러 가지 위협적 요소들이 잠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성령 운동을 방자한 열광적 신비주의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교회에 이 열광적 신비주의는 성령의 영적 은사들을 극단으로 추구하는 기도원이나, 이단적 사이비 단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인데, 한국교회에는 일찍이 재래종교인 사마니즘과 규합하여, 이러한 경향성이 깊숙히 침투되어 있었다.³⁷⁾ 이 유형의 부류들은 고란도 교회의 신비주의자들이나, 초대교회의 몬타누스파들처럼 타 교회에서 가지지 못하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자신들에게는 주어졌다고 보고, 타 신자들에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들이 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은사를 체험하기를 극단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부류를 구체적으로 들어 본다면, 서울 영등포에 자리 잡고 있는 성락교회 유형과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중앙 교회 유형을 들 수 있다.³⁸⁾

2.1. 성락교회 유형

성락교회를 주도하고 있는 자는 독특한 귀신론을 주장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³⁹⁾

혁신학적 고찰" 183-184를 보라.

37) 이 열광적 신비주의는 한국 재래종교(사마니즘)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데, 한국교회의 초창기부터 문제시 되었다. 초창기 때 이러한 성향을 발휘하여 무리를 일으킨 자들은 이용도와 황국주를 들 수 있다. (남영환 『한국교회와 교단 고신 교단사를 중심으로』, (서울:소망사, 1988), 185-200을 보라). 현재 한국교회에도 불건전한 신비주의(무당종교)는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데 80년도 초반, 기독교 일각에서는 이 문제들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담을 가진적이 있다.(한 완상 편집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13-57을 보라)

38)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 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를 참고하라. 이 책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위촉으로 연세대 신학과 유동식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 서광선 교수,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 전 서울대 사회학과 환완상 교수, 한양대 의대 김광일 교수가 각각, 신학적, 종교학적, 사회학적, 정신과학적인 입장에서 성락교회와 순복음 중앙교회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의 현상학적 구조를 분석, 기술한 것인데, 본장에서는 서광선 교수의 신학적 입장에서의 글을 중심으로 신비적 신령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고찰을 하겠다. 서광선 교수는 본 글을 작성하기 위해 3개월간을 성락교회와, 순복음 중앙교회의 예배와 행사에 참석하면서 그들의 종교의식의 현상을 상세하고 관찰하였고, 이 교회들의 출판물과, 이 교회들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집하여 검토 분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책, 24).

39) 대한 기독교 침례회 성락교회를 주도하는 김기동 목사는 1938년 충남 서산군 서산읍에서 출생, 1959년 예산 농업 고등학교를 졸업, 1963년 비봉교회를 시작하여, 베뢰아 아카데미를 발족시키고, 1966년에 월드 선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후에 명지대학(70년)과 대한 신학교를 졸업(72)하고, 79년에 동신학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는 대학 졸업

이다. 그는 매 주일 자신의 설교와 귀신 축출의 집회를 통해 성락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성락교회 신도들은 김 기동 목사의 설교⁴⁰⁾에 열광적으로 호응하면서 김 기동 목사를 광신적으로 따르고 있지만 김기동 목사의 설교 속에 나타나는 이론들은 성경의 범위를 벗어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김기동 목사는 귀신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자의 영혼으로 보는데,⁴¹⁾ 이러한 그의 귀신론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예가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유혹한 뱀을 저주하면서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4절의 "혹을 먹을 지니라" 라는 부분을 "뱀은 흙으로 만든 육체를 먹어라"는 식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타락후의 인간의 육체는 사탄의 먹이가 되므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곳인 것이다. 김기동 목사는 이것을 근거로 하여, 모든 질병과 고난의 상황은 인간의 육체에 들어온 마귀에 의해서 조장되므로 귀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⁴²⁾ 그는 이러한 맥락을 따라 사마니즘과 유사하게도 귀신을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했거나 억울하게 죽은자의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귀신 축출 현상의 관찰을 통한 결론을 가지고 귀신의 정체는 사람에게서 떠나기 직전이나

장이 없었다. 그는 정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받은 체험을 통한 소명의식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다. 『한국교회성령운동의 현상과 구조』 28.

40) 김 목사의 설교는 주로 성경 귀절을 암송하고, 연결하는 것이고, 비유적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이 세상은 악하고 마귀와 사탄과 귀신으로 가득차 있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거듭 강조한다. 성도들은 병을 가져오는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내 쫓아야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김 목사의 설교는 항상 귀신론과 결부 되어 선포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예수를 믿고, 마귀에게 붙들리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병을 고쳐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책, 33-41을 보라)

41) 김기동 목사는 1985년에 『마귀론』(김기동, 『마귀론』 상, 중, 하. (서울:도서출판 베뢰아, 1985),을 출판했는데, 그는 귀신론과 관련하여, 귀신은 "죽은 자의 사후 존재"라고 하여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은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은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종교에 의해 기인된 이단설이라고 주장하고, 귀신은 단지 타락한 천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도서(원세호, 『베뢰아 귀신론 비판』(서울:국제신학 연구소, 1987; 최상경,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서울:기독교문화사, 1988)들을 발간 하였다. (예영수 외4명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 (서울:은성, 1988, 197-198).

42) 서광선 교수는 성락교회에서 주일 오후 2시 예배시에 귀신 쫓아내는 의식을 행사하는 자리에 참석했는데, 그들의 귀신 쫓아내는 방법은 귀신을 괴롭혀서 견디지 못하게 하므로 귀신을 사람의 육체에서 내어 쫓는 것이라고 증언한다. 즉, 귀신은 나쁜 존재이니까, 큰 소리로 "이쌍 귀신아, 자식아, 세끼야" 하고 고향을 지르면 귀신이 나간다는 것이다.(위의 책, 33, 44-45.)

순간에 인간의 감각적 육안으로 충분히 감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의 관찰에 의하면 귀신은 원한을 품은 사람이나 꿈속이나 환상을 통해서 본 친척이나 친구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한다.⁴³⁾ 성락교회의 집회는 김 기동 목사의 이러한 귀신론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된다. 그가 주도하는 집회의 광경은 한결같이 유명 연예인이거나, 사이비 집단의 집회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광란적 열광의 도가니와 흡사한 모습이다.⁴⁴⁾ 이러한 집회의 광경은 성락교회 신도들이 얼마나 김 기동 목사의 설교나 행위에 매몰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인데, 문제는 김기동 목사의 논리들은 성경의 증언에 크게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다.⁴⁵⁾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통해 형성된 신령주의적 유형은 결코 성경적 기독교에 근거해 있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유형은 동양종교나 이방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원론적 혼합주의에 근거해 있다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들의 중심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고침을 얻는 것이 신앙성경이 말하는 새소식의 의미라고 생각하고 설교의 내용이 온통 귀신론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⁴⁶⁾ 이러한 사실은 신,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복음의 진수를 퇴색시키고, 귀신 축출을 통한 병고침이 곧 복음이라는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결국 신도들의 영혼을 오히려 파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이들의 우주관은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해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세계를 하나님과 사탄의 지속적 대결, 갈등, 투쟁의 장으로 볼 우려가 있다는 것과 다른 면으로는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분리시켜, 이 세상을 마귀의 세력이 왕성한 곳이라고만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적 세계관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성경은 사탄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결코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하나님

43) 위의 책, 47.

44) 서광선 교수는 이들의 예배순서의 내용에는 참회의 기도라는 순서가 있는데, 그때 신도들은 통성으로 기도하며, 방언기도와 함께 거의 정신을 잃은 듯이 기도를 한다고 증언 한다.(위의 책 28, 30.)

45)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에 대한 신학적 비판에 대해서는, 최인식, "귀신의 정체: 죽은자의 영인가?"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 (서울: 은성, 1998), 343-416을 참고하라.

46) 김기동 목사는 복음을 마가복음 16 : 17-18을 인용하여 인간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복음 즉, 새소식의 의미라고 정의 한다. (위의 책, 38).

의 주권안에 철저히 종속되는 악의 영일 뿐이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일시 악을 조장하는 무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은 치명적으로 손상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통치의 날에 완전히 소멸되는 존재이다.(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섭리, 진행되는 일원론적 세계관을 말한다.) 또한, 성경은 저 세상과 이 세상을 분리해서 말하는 경향성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비참함을 묘사한 것일 뿐이며,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삶을 영위할 때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⁴⁷⁾

셋째, 이들은 무당종교에서 나타나는 귀신 축출 현상을 토대로 귀신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혼으로 보고, 무속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의 개념을 가지고 귀신론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곳이 없다. 성경은 귀신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결코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⁴⁸⁾

2.2. 순복음 중앙교회 유형

한국의 신흥 교회세력의 확장과 부흥회 등을 통한 교회 성장은 성령운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의 차이를 막론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⁴⁹⁾

이러한 의미에서 순복음 중앙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교리적 경직화를 방지하고, 성령의 생동적인 역사를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인정하도록 유도한 점에 있어서는 한국교회에 공헌한 점이라고 인정할 만 하다. 그러나, 순복음 교회는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은사를 가시적 축복관과 연결시켜,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물질적 번영과 현세적 성공을 지향하는 기복주의적 경향성을 지니고 있으며, 성령운동을 마치,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 주도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장하고 있다.⁵⁰⁾ 순복음 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⁵¹⁾는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오순절

47) 오영석 "예영수 교수의 귀신의 기원에 대한 제 학술 비교 연구에 대한 논평",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 337-339를 보라.

48) 위의 책, 400-413을 보라.

49) 『한국교회 성령 운동의 현상과 구조』, 82.

50) 김영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성경과 신학』, (제7권 1989), 375.

성령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⁵²⁾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의 신학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중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구절을 자신들의 성령론을 보증해 줄 만한 구절로 삼아, 중생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중생한 사람이 복음을 능력있게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세례에 의한 “제2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⁵³⁾ 또한 조용기 목사는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요한 3서 2절)에서 나타나는 위로의 인사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하노라.”라는 구절을 “삼박자 구원”(영적, 물질적, 육체적 구원)을 말하는 구절로 해석하면서, 현실의 물질적 축복과 결부 시켜 설교한다.⁵⁴⁾ 그에 따르면 중생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 하여 성령세례의 제2의 축복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먼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은혜를 받아, 물질적인 축복과 신체적인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조용기 목사는 이러한 기복 신앙적 축복 교리를 토대로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신도들에게 카라스마적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기적적인 교회의 양적 성장을 이루어 현재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 조용기 목사가 주도하는 예배에 참석해 보면 성락교회에서 보았던 예배 형태와 그의 유사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가 집례하는 예배의 모습속에는 신자들의 열정적이다 못해, 광신적인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신도들이 조용기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회의 양적 성장과 신도들의 목사에 대한 신뢰는 바람직한 교회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의 양적 성장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경의 심판대에 올려져서

51) 조용기 목사의 성경 해석법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다른 타 교단의 사상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그의 노력들의 일면을 볼 때 그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순복음교회연구소에서 발행한 잡지, 『성령』 제 5집을 보면 그는 각 교단(교신, 합동, 통합, 기장, 침례교, 성결교 등)의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바람직한 교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을 알 수 있다.

52)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 성령론에 관해서는 『성령론: 고려신학대학원 연구보고서』, (부산: 도서출판 고려기획, 1994); 박형용, “구속 역사적 입장에서 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개혁신학』 (제20호, 1995), 3-42를 참고하라.

53) 김영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386

54) 조용기, 『오중 복음과 삼중 복음』, (서울: 서울말씀사, 1997), 250-272를 보라.

55) 위의 책, 262.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규명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은사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령론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성경구절(사도행전 2, 7, 10, 19)을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 구절들은 성령의 제2의 축복을 보장해 줄만한 구절이 아닌 것이다.⁵⁶⁾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전 12:3)고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전 12:13)고 증언해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주로 고백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엡 1:13) “성령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고”(엡 4:30),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엡 5:18),고 권면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성육하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객관적 구속사건은 세계 역사 속에 단 한번 있는 유일한 사건인 것처럼 예수를 자신의 구원주로 고백함으로 주어지는 중생은 성도의 생애에 단 한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성도들에게 이미 내주해 있는 성령의 주권에 철저히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다.⁵⁷⁾ 성령은 주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내주해 계신다. 성도들은 성령의 주권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충만은 주어져 성도들을 성화 되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 가는 것이다. 순복음 교회는 이러한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을 간과하고 성령 받은 증거를 받드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 은사의 가시적 나타남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일반적인 덕성적 차원에서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이다.

56) 오순절주의자들이 자신의 성령론(제2의 축복)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구절들이 그들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박형용, 『구속사적 입장에서 본 오순절 성령 세례사건』, 8-30; 변종길, “성령세례와 중생”, 『개혁신학과 교회』, (제 2권 1992); 최갑중, 『예수, 교회, 성령』,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19-24); 최갑중, 『성령과 율법』, (재판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1-54)을 참고 하라.

57) 『성령론 연구 보고서』, 50-52.

둘째로,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⁵⁸⁾을 간과하고,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적 건강과 세속적인 성공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세속적 복의 개념이 곧 성경이 증언하는 복의 개념인 듯 착각하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가시적 축복만을 추구하는 중세교회의 행위를 투쟁적으로 비판하였다.⁵⁹⁾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에 비추어 순복음 교회의 삼박자 축복에 대한 집착적 추구를 평가해 볼 때, 다분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치병 현상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연관해서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치병 현상이 교회 성장과 연관해서 설명되어 지거나 인간의 영적 능력을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부각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도 치명적 이쁨의 질병이 있었으나,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지만,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복음 교회의 삼박자 구원의 복음은 바른 성경적 관점으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교직적 왕국화 현상과 대형교회 지향적 성장주의적 유형과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

한국 개신교는 선교역사 면에서 볼 때 천주교나 불교에 비하여 훨씬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수와 제도적 발전의 측면에서는 교회사적으로 경의적인 발전을 해 왔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한국 개신교는 초대교회의 종교 개혁적이고, 복음적인 노선에서 이탈하여, 자체의 성과를 쌓고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왕국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⁶⁰⁾ 한국 개신 교회는 종교 개혁의 정신을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교회 현실에서는 카톨릭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목사를 제사장으로서 이해하

는 경향이 있으며, 교회를 성전으로, 새벽기도회를 새벽제단으로, 헌금을 제물로, 강단을, 제단으로, 신학교를 선지 학교로, 신학생을 선지생도로 부르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 개신교는 강단을 성역화 하여, 강대상을 높이 만드는 등, 예배 공간을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의 모형같이 만들고 있으며, 만인제사장설을 받아 드려 카톨릭의 사제권은 부인하면서도, 목사의 축복권은 인정하는 모순에 빠지고 있으며, 예배의 순서중 거창한 헌금 순서를 마련하며, 헌금자의 명단을 주보에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성경적, 개혁주의적 예배정신에 부합되지 않는 교직적이고 교권적인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목사, 장로, 집사, 등 교회의 직분은 기능적 역할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층화되며, 권위의 상징으로 분화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교권적 교직적, 왕국화 현상은 한국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⁶¹⁾

또한,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위주의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전반적인 경향이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질보다는 양적 성장을 목표로 삼고, 교인수를 늘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신학생들의 중심 생각에도, 대체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대형교회의 스타 목회자를 꿈꾸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관심 때문인지 한국 개신 교회는 양적인 면에서 세계 최대의 단일 교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의 6대 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를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를 가지고 있다.⁶²⁾ 이러한 대형교회는 노회의 규모 보다 크며, 스스로 하나의 교단에 가까운 재력과 조직을 가지고, 선교사 파송, 수양관, 기도원 건립, 신학교 운영, 등 노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쉽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위주의 대형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부름 받은 공동체로서의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교회를 종교적 집회소나, 신도들의 집단적 종교 유희의 장소로 변질시키는 경향성을 가질 우려가 있다. 성도들은 거대화된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들을 상실하고 익명인으로 전락할 뿐 아니라, 담임목사와의 관계도 단순히 설교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관계일 뿐 더 이상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도의 공동체로서

58) 박철수 『축복의 혁명』, (서울:도서출판대장간, 1990), 21-31 ;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제5판 서울:성광문화사, 1990)을 참고 하라.

59) 개혁자들의 중세 교회를 향한 투쟁을 요약적으로 고찰하려면, 하만, 렌위크 공역, 『간추린 교회사』, (서울:생명의말씀사, 1997), 106-143을 참고하라.

60) 김영한,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391.

61) 위의 책, 393.

62) 가장 큰 교회는 순복음 중앙교회이고, 장로교회는 영락교회와 충현교회, 감리교회는 서울의 광림교회와 인천의 승의 교회이다.

느낄 수 있는 참다운 교회의 모습에서 이탈하는 지경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는 성장은 할지 모르지만 결코 현실사회와 역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상실할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다.⁶³⁾ 한국 개신교는 그 동안 이러한 비판을 많이 받아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대형교회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한 교회적 책임을 느끼고, 불우 이웃을 위한 복지 시설을 건립하는 등, 사회 복지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⁶⁴⁾, 이러한 사실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교회 개신의 청신호의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이러한 사회 참여는 단순히 구제의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현재 만연되어 있는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인 풍토와 경제적 불균형의 부조리들을 개선하여, 사회가 민주화되며, 경제적 균형을 가지는 복지사회가 되도록 유도하며, 권력형 부정 축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예언자적 메시지를 선포함과 동시에 예언자적 역사 참여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한국교회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개혁주의적 대안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 현상에 나타난 유형들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았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혁주의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에 대해서 존 볼트의 논의를 중심⁶⁵⁾으로 살펴본 후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개혁주의적 방향을 설정해 보고자 한다.

1) 개혁주의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⁶⁶⁾

63) 위의 책, 395-396.

64)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사회 복지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엘림 복지타운을 건설했고, 충현교회는 장애 아동 조기교실, 소망 교회는 근로자 복지회관을 건립했는데 이는 한국교회가 사회 봉사에 관심을 가지는 축진제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의 책, 397-398)

65) 존 볼트 『그리스도인과 오늘날의 개혁주의』, 13-32를 요약하면서 논한다

66)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요약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자는 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11-13;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11-19을 참고하고 넓은 의미에서, 상세하게

개혁주의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러한 개혁주의의 의미를 묻는 질문은 칼빈의 종교개혁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 답 또한 매우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의 개혁교회들은 더 이상 개혁주의 적이지 않으니,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비난에 직면하곤 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참된 계승자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개혁교회가 꾸준히 탄생되어 왔다.

어떤 이들은 개혁주의를 어떤 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쯤으로 여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들에게는 개혁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전통은 기독교 정신에 대한 가장 순수하고 진정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자는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하며,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개혁주의자에게 있어서 개혁주의의 뿌리를 연구하는 것은 흥미롭고 중요하며, 필수적인 것이다.⁶⁷⁾

1.1. 정의

그렇다면, 개혁주의가 의미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다양한 윤리적 전통이나 신앙고백을 가진 개혁주의라 이름하는 많은 교회들이 화란에서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칼빈주의 전통을 지닌 채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북미에서도 대다수의 개신교 교회가 장로교로 칭해지고 있지만, 개혁주의란 명칭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은 화란의 개혁주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이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벨직 신앙고백, 도르트 신경 등, 소위 3일치 신조(three unity of

고찰하고자 하는 자는 김영한, 『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한국 기독교학생회출판부 1994), 를 참고하라. 김영한 교수는 이 책에서 개혁신학의 특징을 11가지로 나누어서 고찰하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영광 사상,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사상 -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宿命론이 아니라 신앙고백, 3. 인간의 부패한 본성 - 책임성과 창조 질서에 대한 긍정, 4. 하나님의 말씀 - 신앙과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지고의 권위, 5. 경건한 교의 - 스킨라 주의 아닌 경건과 학문의 조화, 6. 성령의 신학 - 의인과 성화는 성령의 역사, 7. 만인 제사장 사상 -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교회, 8. 하나의 보편적 거룩한 사도적 교회 - 연합하고 일치하는 복음적 에큐메니칼 전통, 9. 장로직을 중심으로 하는 대의 민주주의 교회제도 - 성직의 동등성, 10. 말씀 선포와 찬양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의식 - 말씀 선포를 동반한 성례전, 11. 문화적 변혁 사상 -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 증언.

67) 존 볼트, 『그리스도인과 오늘날의 개혁주의』, 13-14.

confession)라는 신앙 고백적 전통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개혁주의를 정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인 성경의 원리(오직 성경),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 나라, 교회정치와 장로교적 질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John Calvin, Abraham Kuyper, Herman Barvink같은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사상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장 특징적인 칼빈주의의 특성중 하나이다. 하지만 유대교나 이슬람이 칼빈주의 보다 덜 신 중심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그런 단순한 주권이 아니라,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언약, 은혜, 종말론적 체계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주권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 -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이신 분 - 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경'의 원리 또한 매우 중요한 개혁주의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 여호와와 증인들과 같은 부류도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개혁주의자를 그들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결국, 성경의 메시지의 본질과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몇 세대의 본질과 내용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와 언약, 등으로 파악한다. 여기에서 언약은 한층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개혁주의자는 신학에 있어서 삼위일체론 자이고, 시각에 있어서는 보편적이다. 모든 정통 기독교, 즉 초대교회의 신경들과 공의회들을 인정하는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지지했고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권위 있고 정통적인 보편적 기독교를 강조 했다. 또한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주의가 곧, 개혁주의를 의미한다고 했다. 카이퍼는 칼빈주의가 어거스틴과 바울, 선지자, 족장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발견될 수 있다고 했다. 심지어 아브라함도 칼빈주의자였다고 주장할 정도였다.⁶⁸⁾

12. 삼위일체적 기독교

개혁주의는 전적으로 삼위일체론적이다. 그러나, 정통 기독교 치고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냐고 반문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 된다. 물론, 모든

68) 위의 책, 19-22.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주장하긴 하지만, 이들은 삼위 중 어느 한 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근본주의 기독교 그룹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창조는 예수 안에서 구원으로 탈출해야 하는 단순한 경기장일 뿐이다. 그리고, 오순절이나 감리교도 들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화에 강조점을 둔다. 오순절은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나타내는 성령의 사역을, 감리교는 사람들을 거룩하고, 성별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전 인류의 아버지이며, 인간은 그가 창조한 고상하고, 이성적이며, 책임성 있는 존재로써 구원을 받기보다는 인간적 잠재력을 개발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당하고 적절하게 삼위일체론 자가 되는 것이다. 개혁주의 내의 최상의 형태는 거룩한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바 창조 세계 안에서의 삶의 가치와 보람과 오직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구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온당한 삼위일체론 자가 되는 것이다.⁶⁹⁾

13. 성부 하나님과 창조의 우선적 역할

칼빈은 "아버지에게서는 활동(창조)의 시작과 만물의 근본과 복지가, 아들에게서는 지혜와 권고와 문물의 질서 있는 배치가 돌려진다. 그리고, 성령에게는 그 활동에 권능과 효과를 준다."고 했다. 카이퍼도 삼위의 경륜과 활동의 차이점을 이와 비슷하게 설명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구분으로 시작한다. 즉, 아버지로부터 발생하여 진행하고, 그 권능은 아들로부터 배설되고, 그 권능은 성령으로부터 완전해지는 것이다."

물론, 삼위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위격은 동일하지만, 그 활동과 기능에는 순서가 있다. 그 활동의 순서에 있어 아버지가 가장 우선된다. 칼빈주의 삼위일체 신학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특별히 창조가 구원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가지며, 이 구원은 창조를 떠나거나 창조를 초월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만족하지 않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

69) 위의 책, 24-26.

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것은 개혁주의 전통이 직업이나 이 세상에 대한 부름심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많은 강조를 두고 있음을 뜻한다.

개혁주의자의 시각은 보편적이다. 세상에서의 삶의 개혁적 시각은 전 우주에 걸쳐 있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의해 지배된다. 카이퍼는 그의 책 Lectures on Calvinism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칼빈주의의 지배 원리는 구원학적으로 볼 때, 믿음에 의해 의롭게됨이 아니라, 광의의 우주적 의미로 모든 영역과 나라와 모든 가시적이고 불 가시적인 것에 있어서 전 우주에 걸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보편성이 뜻하는 바이다." 헤르만 바빙크 역시 삼위일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죄로 인해 파괴된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성자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회복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재 창조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써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즉 자녀교육, 직업, 사회 활동등 모든 것을 삼위일체론 적인 관점에서 시도해야 하도록 애써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이것이 창조와 타락과 성자와 성령의 구속사역과 성화 사역에 어떻게 관계를 가지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구속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식적 삶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⁷⁰⁾

2) 한국교회 현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으로서의 개혁주의적 방향 설정.

위에서 논한 개혁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를 요약하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맥락을 따라, 본고의 초두에서 논한 한국교회의 문제점들과 결부시켜 한국교회의 개혁적 방향을 설

정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 초두에서 한국교회의 현상에 나타난 유형들을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본적 자유주의 노선에서 표방하고 있는 민중 이데올로기 유형은 개인 구원만을 최고의 이상으로 삼고, 사회의 부조리에 침묵하고 있던 보수 교단의 고착된 종교에서 탈피하여 텍스트와 상황의 교호 작용 속에서 현실 대안적 민중신학을 창출해 냈지만 그들의 신학은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를 상황에 종속시키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핵심에서 벗어나 민중을 신격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경향으로 나아갔다. 그들의 신학적 작업과 행위에는 암울한 역사적 상황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변혁하려는 긍정적 요소들이 잠재해 있으나 교회가 선포해야 할 근본적 메시지를 인본적 시각에서 재 해석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둘째, 신비적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열광주의적 유형은 유한한 인간의 실존적 상황의 고통을 해소 할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성령의 역사하심과 결부시켜 선포하고 성령의 초월적 기적의 역사를 추구함으로써, 한국교회를 양적으로 팽창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지만, 성경을 사마니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시킴으로써, 불건전한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나아 갔고, 세상적 번영이 곧 성령이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대치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들의 예배의 모습은 열광적이었으나, 예배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성경에서 이탈하거나 균형 잡히지 못한 관계로 성경이 요구하는 삶을 통한 열매에는 무관심하게 만들 우려를 낳았다.

셋째, 교직적 왕국화 현상과 대형교회 지향적 성장주의 유형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개혁의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카톨릭적인 요소를 그대로 품고 차체의 성곽을 쌓아 사회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에만 몰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열정을 쏟고 있지만 교회의 정체성인 공동체로서의 유기적 친교를 등한히 할 수밖에 없는 교회 형태를 형성시킴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친교적 공동체성을 퇴색시킬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런 부조리한 교회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결단코 본고에서 고찰한 어떠한 유형에도 고착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유형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이상적 교회의 모델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교회는 순례자의

70) 위의 책, 26-30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향하여 끊임없는 순례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을 떠났듯이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고착되지 아니하고 나그네로서의 진리를 향한 길을 개혁적 의지를 품고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개혁적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교회는 개혁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개혁신학적 정신을 현대에 바르게 적용시켜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창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인간의 세속적 기구나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에 따라 형성된 거룩한 모임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증언을 통해 인지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로의 교회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적 정체성을 확립한 교회는 인본적 자유주의 노선의 민중 이데올로기를 성경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근거하여 구출해 내야 한다. 개혁주의적 교회는 그들과 사랑의 정신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견지해야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 동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주의적 정신으로 그들의 심령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의 사랑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의 정신으로 민중의 교회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은혜에 응답하여 고난받는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 개혁주의 교회는 타락한 세상의 죄된 요소를 방관하고 교회안에서의 거룩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육하신 정신을 본 받아 세속의 죄악된 공간에 적극적으로 침투하여 개혁적 변혁의 의지로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비적 열광주의자들이나 자기 교회의 확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자들이 가지는 개인의 주관적 체험과 업적의 기쁨에서 탈피하여 "타자를 위한 삶"을 각오하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사회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절규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통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하나님 주권의 실현자로서 문화의 변혁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성경의 정신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역사의 현장과 세속 문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개혁주의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면서, 부패하고 부조리한 세속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회의 사명은 교회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도 있음을 알고 세속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민중신학에서 말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 정신의 차원에서 역사적 삶의 고난과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실현하는 문화의 변혁자로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는 신령주의적 열광주의 유형이 추구하는 성령의 초월적 역사에 의한 주관적 체험에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성령 역사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며, 교직주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종교적 위계 질서나 제도속에 함몰되지 아니하며, 대형교회 지향적 성장주의자들 처럼, 역사적 현장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외면하고, 내적 성숙을 도외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삼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삶의 현장의 유기적 공동체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하여 끊임없이 자기 변혁의 신학을 추구해야 한다. 이 지상의 교회가 결코 완전 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주지의 사실이다. 교회는 결코 역사 안에서는 그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교회의 완성은 역사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어떠한 교회도 교리나 신조나 제도, 기구들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 순례자의 교회로서 초월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향해 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이 후손들에게 교훈적으로 물려준 것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계속해서 개혁해 가는 "개혁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현대에 존재하는 한국교회도 성경의 증언에 근거하여 자기 교파의 절대성만을 주장하는 아집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과거의 교파 분열의 오류를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 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먼저 교회가 진정한 화해의 장을 마련하고, 그것을 힘으로 하여 50년 동안이나 고착된 민족 분단의 비극적 아픔을 해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끊임없는 일치운동과 특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예 힘쓰는 모습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개혁주의 원리가 실현되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한국사회에 실현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III. 나오는 말

21세기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과연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의 모습은 성경의 증언에 근거한 개혁신학의 확립 여부에 그 사활이 달려 있다. 한국교회가 삼위 하나님 주권의 온전히 실현되는 공동체로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혁주의 신학이 성경의 정신으로 재 확립되어야 한다.

본고에서 거론한 한국교회 현상에 나타난 민중 이데올로기적 유형속의 문제점, 신비적 신령주의를 추구하는 열광주의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교직적, 왕권화 및 대형교회 지향적 성장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근본 배후에는 개혁주의 신학의 퇴락 내지는 부재에 기인한 것이다. 즉, 모든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성경)에 근거한 신학의 부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난 1세기를 지나면서 온갖 시련과 박해의 격랑 속에서 싸우며 자라 왔다. 초창기 교회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은 불굴의 신앙 정신과 자기 희생적 순교 정신은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초석이 되었다. 한국교회의 성장의 열매는 그들이 뿌린 순교적 정신의 열매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한국교회의 성장 이면에는 부조리한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 책임 받은 책임적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위기에 봉착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직감하면서 미래의 한국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위한 염려 어린 심정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과연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역사 속에서 승리한 조국 교회의 선배들의 신앙정신을 회고하면서 해소해 보곤 한다. 그들의 신앙정신의 근거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사는 삶의 정신이었다. 즉 개혁주의적 신앙정신 이었던 것이다.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거대한 중세교회의 비진리적 형상에 어떤 정신으로 도전하였는가? 외형적 찬란함 속에 내재되어 있던 중세 교회의 악마적 경향성에 투쟁적으로 항거한 개혁주의자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성경 중심의 원리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악마의 교묘한 거짓 행위를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규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종교 개혁자들의 성경중심의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른 신앙적 안목을 가지게 할 것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기록하신 뜻이 영롱하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혁주의 신학이 새롭게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한국교회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학의 원리 위에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간파하고 극복하여야 하며, 21세기 한국교회의 대안적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 개혁주의 신학을 구체화함으로 조국의 백성들을 향해 복음적 멧세지를 생활 속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적 한파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먼저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고 철저히 성경의 정신으로 돌아가 개혁적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 하는 마음으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제사장적 직분, 예언자적 직분, 왕적 직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한국사회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실현되는 그 날을 희망하며, 개인과 사회를 전인적으로 구원 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주의적 멧세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어야 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성경 중심적 사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을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각색하려는 인본적 사상의 무리를 향하여 "나는 성경이 가라 하는데 까지 가고, 성경이 서라 하는 곳에서 설 것이다"고 강변한 종교 개혁자 칼빈의 성경 중심적 사상은 오늘 이 시대에 존재하는 한국교회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훈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기독교와 역사해석:길군 아세아 연구 및 신학 강좌』, (서울:성광문화사 1994).
- 김남식, 『역사와 신앙』, (3판 서울:두란노서원, 1992)
- 김연택 『한국종교와 교회성장』, (안양:대한신학대학원출판부, 1998).
- 김경래 『한국민족 발전과 개신교 110년』 『믿음생활과 하늘 위로:소암 신군식 목사 회갑 기념문집』 (서울:총회출판국, 1995).
- 김기동, 『마귀론』 상, 중, 하. (서울:도서출판 배피아, 1985).
-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제 4판 서울:성광문화사, 1995).
- 김양선, 『한국 기독교 해방 십년사』, (서울: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1956).
- 김영한, “한국 교회 성장에 관한 개혁신학적 고찰”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 성장』 제11집(서울:총회출판국, 1996).
- 김영한, “한국 기독교의 양적 성장에 대한 요인 분석 소고”, 『한국기독교와 신앙』, (서울:도서출판 풍만, 1988).
- 김영한, “한국신학의 진단과 진료” 『개혁사상』, 1989 제1호.
- 김의환, 『성경적 축복관』, (5판 서울:성광문화사, 1990).
- 김혜연, 『한국 교회사』 (2판 성광문화사, 1997).
- 나용화, 『칼빈과 개혁신학』 (제판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 남영환, 『한국교회와 교단: 교신 교단사를 중심으로』, (서울:소망사, 1988).
-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4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 박봉량, 『신학의 해방』, (제판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94).
- 박아론, 『현대신학연구』, (5판 서울:기독교 문서선교회, 1997).
- 박철수, 『축복의 혁명』, (서울:도서출판대장간, 1990).
- 박형용, “구속 역사적 입장에서 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개혁신앙』 (제20호, 1995).
- 박형용, 『박형용박사전집』, 제1권.
- 변종길, “무엇이 성경적 교회 성장인가”, 『목회와 신학』, (1993. 7).
- 변종길, “성령세례와 중생” 『개혁신학과 교회』, (2권, 1992).
- 서남동 “한국신학으로서의 민중신학적 과제” 『신학사상』, (24권 봄호, 1979).
- 서남동, “두 이야기의 합류”, 『민중신학의 탐구』, (1979) 3. 79.
- 『성령론:고려신학대학원 연구보고서』, (부산:도서출판 고려기획, 1994).
- 신국원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 교회 문제점과 성장 방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주도 최의원 박사 신학 교육 40년 기념 논문집』,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 신성종 “한국 교회 문제점과 전망” 『한국 교회 현실과 전망』(제3판 서울:한국로고스연구원, 1994).
- 심군식, 『한국 교회 인물 25인 약사』, (서울:도서출판 영문, 1993).
- 안병무, 『역사와 해석』, (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98).
- 유해무, “확관 교회가 계속 차 있도록”,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서울:총회출판국 1996).
- 예영수 외4명,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 (서울:은성, 1988). 원세호, 『베뢰아 귀신론 비판』, (서울:국제신학 연구소, 1987).
- 이근삼, 『개혁주의 신앙과 문화』, (서울:도서출판 영문, 1991).

- 이상규, “해방이후 분단시대의 민족과 교회”,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서울:총회출판국, 1996).
- 이형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의 모색』,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98).
- 존 볼트, 『그리스도인과 오늘날의 개혁주의』, 1984.
- 『전환기의 민중신학:죽제 서남동목사의 신학사상 중심으로』, (한국신학연구소 1992).
- 조용기, 『성령님』, (서울:서울서적 1995).
- 조용기,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 (서울:서울말씀사, 1997).
- 지병구, 『사마니즘과 한국교회』, (서울:새한기획출판부, 1996).
- 채희동, 『민중, 성령, 생명』, (서울:도서출판 한들, 1996).
- 최갑중, 『예수, 교회, 성령』,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 최갑중, 『성령과 율법』,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최덕성, 『교회 교육과 교회성장』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서울:총회출판국, 1996).
- 최삼경, 『베뢰아 귀신론을 비판한다.』, (서울:기독교문화사, 1988).
- 최인식, “귀신의 정체:죽은자의 영인가?”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본 마귀론 이해』, (서울:은성, 1998).
- 하만, 렌위크 공역, 『간추린 교회사』, (서울:생명의말씀사, 1997).
-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의 현상과 구조』, (서울:대화출판사, 1982).
- 한완상 엮음,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한기독교출판부 1982).
- 현유광, “교회의 숫적 성장을 위한 신학적 재조명”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서울:총회출판국 1996).
- 현유광, “교회가 숫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성경적 근거와 적용”, 『개혁주의 전통과 교회성장』, (서울:총회출판국 1996).
- 황종렬, 『한국 토착화 신학의 구조』, (서울:도서출판 국태원, 1996).